

# 1960년대 Fashion과 예술양식

반 현대주의; 모더니즘적 성공을 거부하고 인간성 회복을 주장

- >> 자유롭고 반 유행적 의복
- >> 다양한 실험적 소재와 디자인
- >> 성의 차이를 부정하는 유니섹스 의복
- >> 화려한 남성복의 등장



## 1960년대

❖ 세계경제 호황

❖ 우주시대 개막

❖ Baby boom 세대의 경제적 독립

반 현대주의 운동: 히피, 반 엘리트 예술운동

합성섬유, 가공법 발달

→ young fashion, 실험적 fashion, 반 현대적 fashion

## ■ 사회 갈등과 베트남전쟁

- 196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분위기 속에서도 젊은이 문화가 사회 전체 분위기를 주도
- 1960년대 초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과, 미국 내 흑백 갈등, 마틴 루터 킹의 암살, 아일랜드의 정치적 투쟁, **베트남 전쟁**, 긴장감을 더해가는 쿠바·중동 지역



런던에서 있었던 베트남 반전 시위, 1965년

젊음의 시대: 혼돈의 활기찬 시대(1964~1975)

- **모즈** : 1960년대 런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들의 삶의 중심은 패션과 쇼핑으로, 약간 넓은 어깨선과 좁고 꼭 맞는 짧은 길이의 재킷, 가는 타이,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바지, 앞이 뽕족한 구두나 앵클 부츠를 착용.



비틀스, 1963년

1960 년대 이 더 K(mods) 와  
락 커(rockers), 히피(hippies)



- **히피** : 1960년대 중반에 최초의 히피들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모이기 시작
- 자신들을 '**꽃의 아이들(flower child)**' 이 라고 부르면서 반 부르주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표출.
- 패션스타일; 유럽의 페전트 스타일 블라우스와 드레스, 미국식 패치 워크, 자수된 인디안 튜닉, 멕시코 웨딩 셔츠를 입어, 민속적인 요소를 보여 주었고, 데님 진, 긴 원피스, 긴 헤어스타일 .
- 의복에 홀치기염, 자수, 패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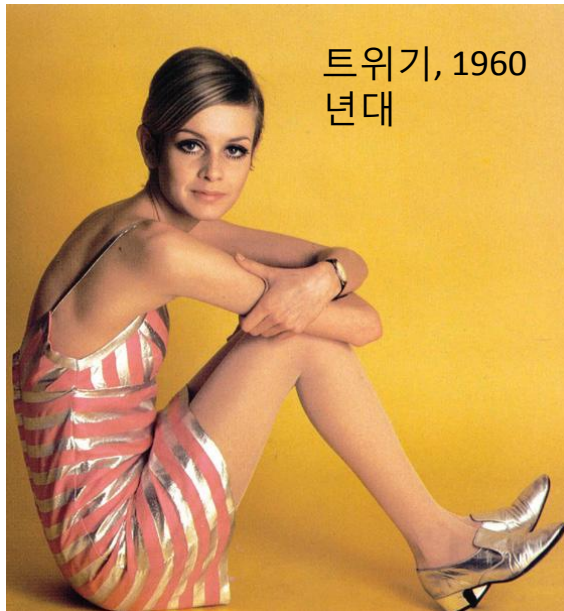


런던의 히피들로, 자수와 프린지가 있는 옷을 입고 있다. 1965년

1960 년대 이 더 K(mods) 와 락 커(rockers), 히피(hipp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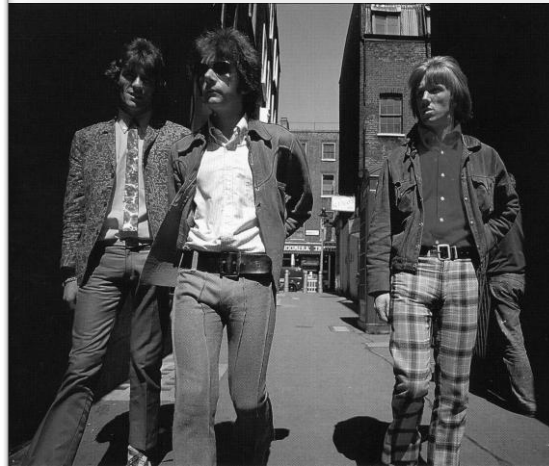
- 트위기
- 트위스트
- 비틀스
- 롤링 스톤스



Youth culture



- 카나비 거리
- 밑위가 짧은 바지, 화려한 색상의 셔츠, 가죽재킷, 캐시미어 코트, 분홍색 넥타이



**Peacock revolution**



- 파리 오트 쿠튀르의 디자이너 주도권\
- 미국 : 다수의 기성복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게 되면서, 캐주얼 웨어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시작.
- **새로운 합성 섬유가 등장**하고, 의류 생산과 유통방법이 개선되어 의류 상품의 가격이 대중적
- 소비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적응하기 위하여 **패션 잡지를 구독**하였음.

다양해진  
패션상품  
판매경로  
파리 패션의 부활과

# Fashion style

우주시대  
유니섹스패션  
팝아트 옅아트  
몬드리안패션



앙드레 쿠레주의 우주시대 패션

## 우주시대 패션

### 앙드레 쿠레주 André Courrèges:

- 1964년 '문 걸(Moon Girl)' 컬렉션을 선보이며 우주시대를 위한 패션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 계속되는 미래적 패션 컬렉션에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선과 기하학적 형태의 의복을 선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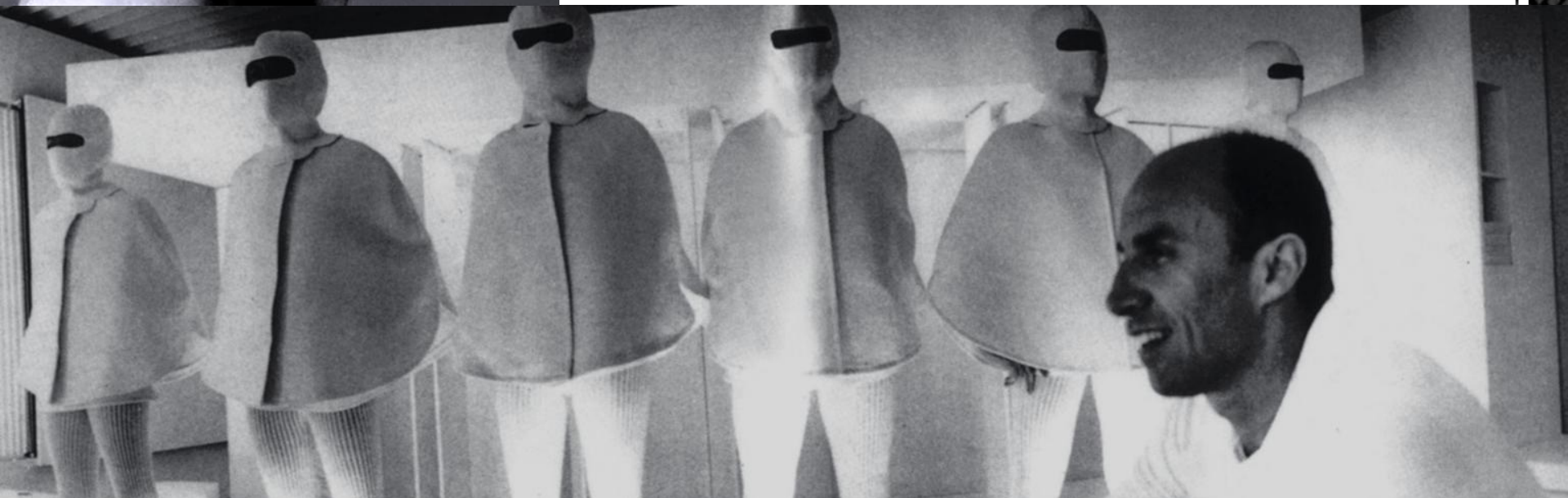
### 피에르 가르덴

- 1964년 그의 우주시대 라인을 선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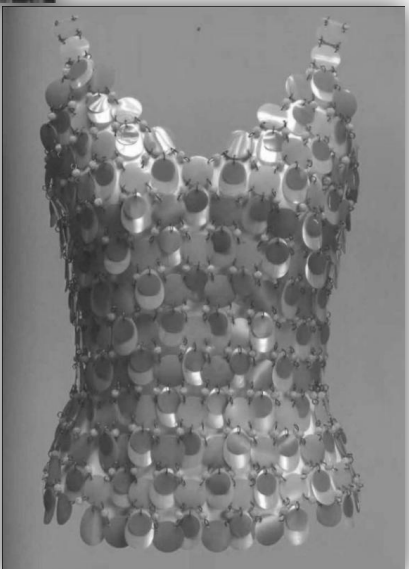
### 파코 라반 Paco Rabanne

- 사각형의 플라스틱 판이나 금속 판들을 가느다란 금속사슬로 연결하여 만든 '유토피아적' 드레스로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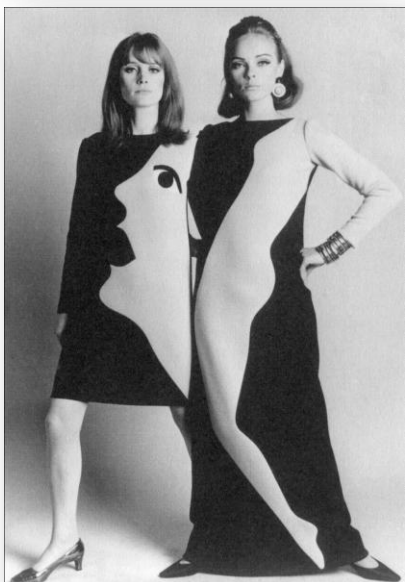




# Paco Rabanne



# 이 피 꽃 매 슈 Yves Saint Laurent





- 1960년대 초반에는 기하학적 형태의 색이 있는 플라스틱 장신구가, 1960년대 후반에는 크기가 크고 장식적인 팔찌, 금색 체인과 색 있는 구슬 장신구가 유행.
- 남자들은 터틀넥 스웨터를 입을 때 목걸이를 하는 것이 유행.

## Shoes & Accessory



선글라스 광고로, 선글라스를  
일년 내내 쓸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196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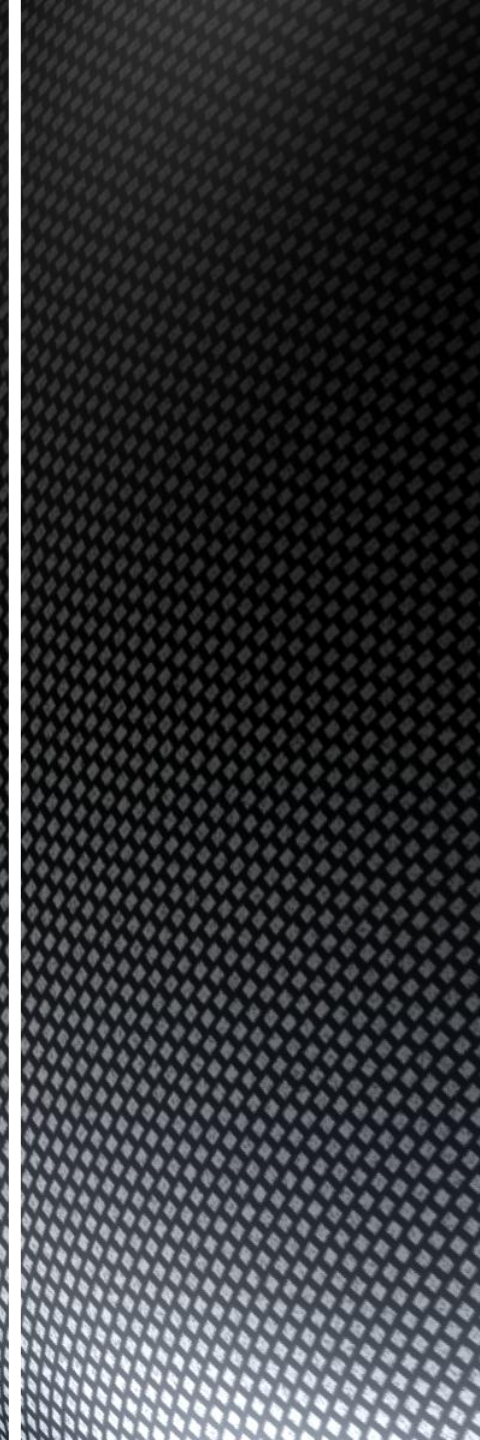
## Tiger Morse

---



# 1960년대 예술양식

팝아트  
옵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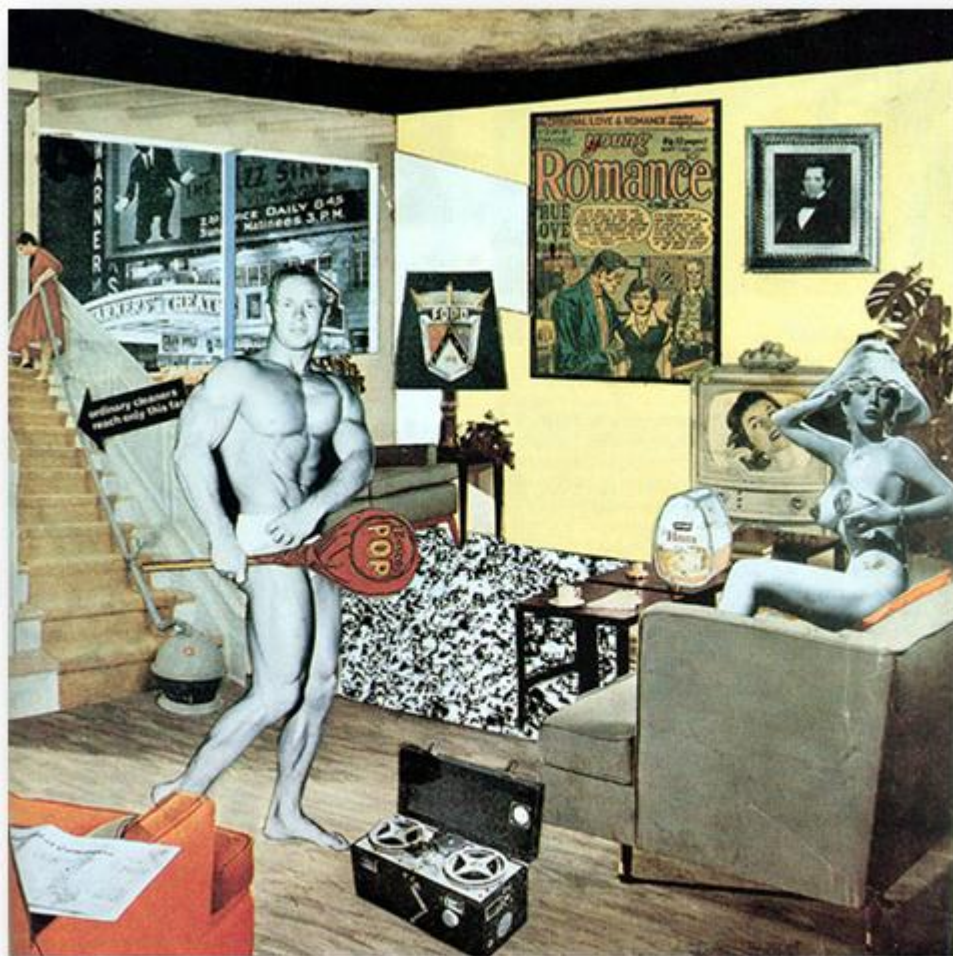
- 1. 용어
- 팝아트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소비문화의 대중미술
- 1960년대 초기에 미국에서 발달하여 미국화단을 지배했던 구상회화의 한 경향.
- -체재: 통속적 이미지. 즉 일상생활에서 범람하는 기성의 이미지
- -영국에서 시작. 런던의 '현대미술협회'에서 인디펜던트 그룹 Independent Group이라고 지칭하는 그룹에 의해 열린 연속토론에서 출발. 이 연속토론에는 미술가, 평론가, 건축가들이 포함. 미국의 대중문화에 매혹되어 있음
- -영국의 비평가 Lawrence Alloway가 용어를 처음 사용
- -'Pop' 예술형태들이 가진 공통점은 매스미디어의 형상과 때로는 기법까지도 사용한다는 것
- -새로운 경향을 지칭 '신통속주의 (New Vulgarianism)', '신사실주의(New Realism)', '신다다주의 (Neo-Dadaism)'.

- -1950년대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대량생산과 소비가 절정에 달하게 된다. 자연대신 광고판과 대중매체를 통해 넘쳐나는 각종 이미지들이 '자연'이자 '환경'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
- -추상표현주의에 식상한 화가들이 경쾌하고 가벼운 대중문화의 이미지들을 그림에 등장. 이들은 만화나 텔레비전 또는 잡지광고들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들을 기호로 채택.
- -팝은 대중음악과의 관련성을 의미. 특히 대중음악의 가수나 그룹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영역과 관련을 맺게 되었는데 대중음악가들이 이례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성공하였던 것은 1960년대의 괄목할 만한 현상.

- 1) 영국의 팝아트
- - 부분적으로는 장엄한 낭만주의에 대한, 1940년대에 영국에서 풍미했던 화풍-지나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던-에 대한 반작용
- - 사회비판의 의도, 구태의연한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와 예술을 접목시키고자 했던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전개되었음.
- - 아이러니컬한 성격이나 표현의 직접성 등에는 전통에 대한 다다이즘적인 반응.
- 해밀튼, 파올로찌, 키타이 R.B. Kitaj(미국태생), David Hockney, Allen Jones, Peter Black, Peter Philips

- -1950년대 추상표현주의의 애매하고 환영적인 형태와 주관적인 미학에 대한 반동. 미국의 팝아트는 특히 미국의 전위적인 작곡가 존 케이지: 관객의 마음을 무산
- - 미국의 팝아트는 미국으로 상징되는 현대의 테크놀로지 문명에 대한 낙관주의를 기조.
- - 흔히 발견되는 일상의 이미지나 물체를 미술작품으로 전환. 일상적으로 흘러 넘치는 영상 또는 물체를 이용
- - 미국의 팝미술가들-다인 Dine, Oldenberg, Rosenquist, Lichtenstien, Warhol, Jasper Johns
- 아래의 그림은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남자가 들고 있는 사탕에 쓰인 POP가 팝아트의 유래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그토록 다르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가? 해밀턴의 플라주 작품(1956년)

## <팝아트 작가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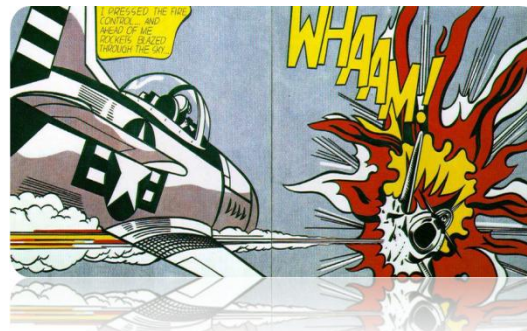
### 1. 앤디 워홀 Andy Warhol (1928-1987)

-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 '팝의 교황', '팝의 디바'로 불린다. 대중 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영화, 광고, 디자인 등 시각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 살아있는 동안 이미 전설이었으며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아이콘
- -영화배우와 같은 유명인들(마릴린 몬로, 엘비스 프레슬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외의 공적인물(재키 케네디, 워홀 자신 등), 또는 범죄인들, 공포스러운 소재인 전기의자나 자동차 충돌 장면, 그리고 소나 꽃과 같이 평범한 형상들은 캔버스 위에 반복

- - 만화를 대중미술로 승격. 만화의 형식, 주제, 기법 차용
- 다른 소재들도 만화의 통속적인 표현양식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지속함.
- - 만화의 인기 있는 이미지를 두 세편쯤 골라 단순화시킨 후 강한 색채를 가해 현대인들의 잠재적 폭력과 영웅심을 만족시키는 대중미술을 창조.
- - 1965-66년에 표현주의적으로 휘두른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넓은 붓 자국을 만화형식으로 변형시킨 연작을 제작하여, 일반적으로 추상표현주의의 과장된 표현 방법을 비웃는 것으로 해석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멜로디...(1965)  
>>만화책의 한 칸, 말풍선, 밝은 원색사용, 망점 기법



Whaam!1963 광!

© Estate of Lichtenstein - SACK, Seoul, 2010 소장처; 테이트갤러리 출처: 로이 리히텐슈타인 재단

## 2.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1923-)

- - 국기, 숫자, 과녁, 미국지도를 그림. 추상표현주의 화풍으로 그림

깃발(Flag)(1954-55)

; 왁스에 안료를 녹여서 그리는 납화법(encaustic)을 사용, 뜨거운 납에 안료를 섞어 그리는 방법으로 고대의 미술가들이 사용하던 것.

채색된 브론즈(Painted Bronze)(1960)

- 맥주캔을 청동으로 뜯 후 색칠한 일종의 조각
- 평범한 사물을 선택하여 그것을 청동 주조함으로써 일상적인 것을 불멸의 것으로 만들었음.



#### 4. 펄퍼 피 김아직퍼 퍼 Robert Rauschenberg(1925-)

- -1955년 일련의 Combine painting제작.
- 콤바인 페인팅은 자신이 사용한 용어.=앗상블라쥬
- 이 작품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난 사진 또는 그림들과 기타 잡다한 사물들을 모아서 강력하고 혼란스러운 인상을 주는 구조물



Bed, 1955

"콤바인 페인팅" 역시 여러가지 상이한 재료들을 결합시킨 회화: 이불, 신문조각, 잡지, 타이어 등 일상용품들이 사용. 침대를 구성하는 세속적 소재, 엄숙한 고급미술에 대한 허무주의적 도전, 다다적인 행위

## 4.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1929년)

- -팝아트의 조각으로 대중문화 풍자. 현대인들이 대량생산한 소비품을 관객들이 다시 체험하게 하고, 다른 각도에서 미술품으로 새롭게 체험하도록 함(햄버거의 값싸고 조잡한 음식문화, 빨래집게, 스푼 등의 대형화 등)



모든 것이 들어있는 두 개의 치즈버거>

-1962초기의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는 아이스크림 콘, 햄버거처럼 미국인들이 흔히 즐겨 먹는 음식을 거대하게 제작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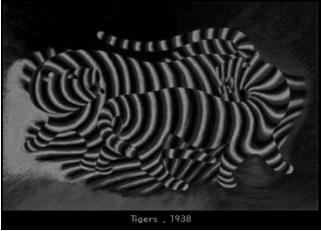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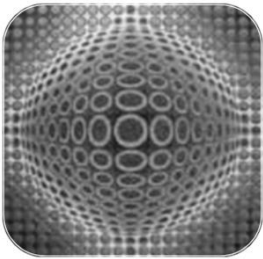


부드러운 타자기(soft typewriter)1963

사물의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사물의 소재의 속성을 바꾸어 버림

- 1. 옵아트의 탄생
  - 윌리엄 사이프스에 의한 <응답하는 눈>전 (1965년)이래 '시각적인 미술'
  -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추상미술의 한 동향
- 2. 특징
  - - 팝 아트의 상업주의나 상징성에 대한 반동적 성격
  - - 양식이라기보다는 대체로 기술적인 면이 강함
  - - 미술품의 관념적인 향수를 거부하고 순수하게 시각적으로 작품을 제작
  - - 과도하게 지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차가운 느낌

### 3. 옹아트 작가 바자렐리 (Victor Vasarely, 1908 ~ 1997 / 180 - 181)

- - 기하학적인 형태와 선에 의한 착시효과를 나타내는 "키네틱시즘"에서부터 옹 아트, 공공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
- - 수학적으로 계산된 기하학적인 형태를 생생한 색채로 구성, 착시로 인한 시각효과와 움직임 을 느끼게 하는 화려한 양식을 확립하여 옹아트의 창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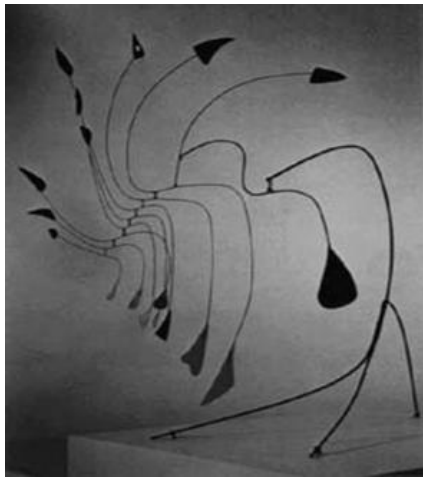
	
Tiger, 1938	직녀성
	
<오리온MC>	<0771-Ovrve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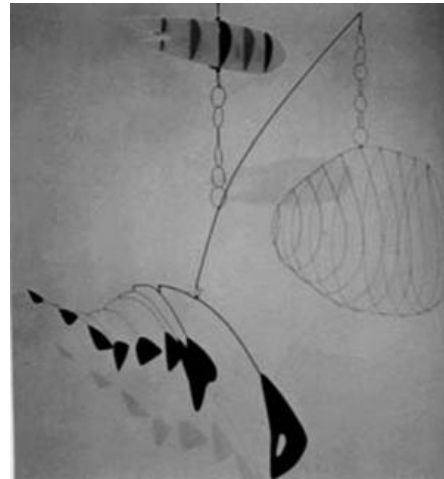
- 1. 용어
  - - '움직임'을 의미하는 'Kinesis(=movement)'와 'Kinetic(=mobil)'라는 그리스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듯이, 움직임을 본질로 하는 미술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
  - - 1960년대의 빛, 움직임, 소리로 대표되던 키네틱 아트의 미학적 요소에 의한 구성 대신에, 물, 안개, 연기, 불, 생물적 요소를 포함하는 일종의 생태학적 방법론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였음
  - - 옵 아트 등의 시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는 부분이 조립된 것 등을 포함함.
  - - 작품은 거의가 조각의 형태
  - - 대표 작가: 콜더, 아감, 탕글리

- 1) 시지각성
  - - 오브제의 시지각상의 움직임이나 실제의 움직임, 때로는 관찰자의 움직임에 의해 긴장감이나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성
  - - 시지각을 통한 착시적인 효과, 관찰자의 보는 위치에 의한 형태의 변화
  - - 시간에 따라 일정한 형태가 변형되므로써, 관찰자의 시지각을 자극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특징을 가짐.
- 2) 변형성
  - - 움직이는 바퀴의 살이 사라져 보이는 것처럼 오브제의 빠른 움직임에 의해 형태가 변형.
  - - 대상이나 관람자의 움직임에 의해 작품 자체에 풍부한 변화가 생기는 것도 여기에 해당됨.

- 1)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1898~1976
- - 움직이는 조각 '모빌(mobile)'의 창시자이자 '
- -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의 선구자로, 20세기 조각사의 중요한 획을 그으며 현대미술의 특성을 더욱 확장시킨 중요한 인물.



스탠딩 모빌; <새우 잡는 올가미 1939>260 x 290 cm, 뉴욕, 현대미술관



물고기 꼬리 작은 거미(Little Spider) 1940년 경, 140 x 127 cm, 뉴욕, 펄스 화랑

ω 키네틱아트작가

- 2) 아감의 작품은 골이 패인 단일한 표면에 사용한 다양한 색채로 인해 관람자가 이동함에 따라 서로 다른 구성 형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변형성을 미적인 요소 추구. 프랑스 화가. 조각가. 키네틱아트의 대표자

